

국별 리포트

#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2,345천 km <sup>2</sup>	G D P	120억 달러(2010년)
인구	67.7백만 명(2010년)	1 인 당 G D P	177 달러(2010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ongolese Franc (FC)
대외정책	친서방, 비동맹외교	환율(달러당)	950.0(2010년 평균)

-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아프리카 제 3위)와 6,7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비옥한 토지와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등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과 지속적인 무력 충돌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 있음.
- 2006년에 카빌라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내전으로 파괴되었던 인프라 재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 국경지대의 지속적 폭력사태와 막대한 외채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경제성장률	5.6	6.3	6.2	2.8	5.0
재정수지 / GDP	-0.7	-1.9	-2.2	-3.8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3.2	16.7	18.0	46.1	26.0

자료: IMF, EIU

#### □ 세계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 콩고민주공화국은 2003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사회적 안정, 국제 금융기구 및 서방 선진국의 원조, FDI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간 6% 수준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품인 다이아몬드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도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2.8%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GDP의 약 37%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호조와 광업·건설업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5.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 적자기조 지속

- 2006년 카빌라 대통령 당선 이래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접경 지역의 잦은 무력충돌로 군사비도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국제 원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 원조액(십억 콩고 프랑): 116(2007년), 151(2008년), 624(2009년), 1,244(2010년)

- 201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8%로 전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9월에 IMF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을 승인하면서 향후 3년간 5.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건 사업 등 경제개발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 내전 이후 한 때 500%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으로 2003년에 4.4%로 안정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에 군비지출 증가 등으로 21.3%까지 상승한 이후 연 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9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확대금융정책 실시, 콩고 프랑화의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6.1%로 치솟았으나, 2010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26.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2. 경제구조·정책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여전히 1차 산업(광업, 농업 등)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후진국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GDP 구성비는 농업이 약 37%로 가장 높고, 광업 13.4%, 제조업 12.6%, 서비스업 34.7% 등임.

□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교통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도로 상황은 유지보수 부족과 노후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광대한 국토에 비해 도로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총연장 15만 km의 도로 중 포장도로는 3,000 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통신 분야도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유선 전화선은 거의 없고,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률도 매우 낮음.
  - 유선전화의 시설 부족으로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수력발전 잠재력은 아프리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제 인프라 미비 및 개발 부족으로 현재 전 인구의 7%만이 전기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인적자원 부족**

- 인구는 2009년 6,869만 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이나, 오랜 내전으로 기대 수명이 급감하면서(2008년 기준 48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상황임.
-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 2008년 중등학교 진학률이 34.8%에 불과하고, 성인의 식자율도 66.6%로 집계되는 등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음.
- 2010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도 총 169개국 중 168위를 기록하는 등 인적자원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성장 잠재력]

□ **광대한 영토 및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광대한 국토(아프리카 제3위)에 산림, 수자원, 광물,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함. 열대림 면적은 총 1조 2,000억 m<sup>2</sup>로서 아프리카 산림 면적의 47%, 세계 열대림의 8%에 해당됨.

- 원유 매장량은 아프리카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 코발트, 아연, 다이아몬드, 콜탄, 금, 은 등 50여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다이아몬드(매장량 1억 5,000만 캐럿, 세계 1위), 코발트(300만 톤, 1위), 구리(7,500만 톤, 6위)가 유명함.
- 동부 지역의 철광(200만 톤 이상), 서부 지역의 보크사이트와 석유, 메탄 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정책성과]

□ 정책 운용의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체계의 투명성 부진

- 2003년에 카빌라 과도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 감시체제에 참여하고 국내법을 정비하였으며, 외환통제를 철폐하고 민영화를 추구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였음.
- 2006년 민주선거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카빌라 정권은 재정, 통화정책의 선진화를 통하여 물가 및 통화가치 안정, 외환보유액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도 적극 유치하였음.
- 정부는 2009년 4월에 국영광업공사 등 20개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율을 49%까지 개방하기로 하는 등 경제의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투명성지수 순위에서 총 178개국 중 164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가 심각한 실정이며, 공권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편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183	-153	-1,841	-1,255	-2,650
경 상 수 지 / G D P	-2.1	-1.5	-15.8	-11.6	-22.1
상 품 수 지	-39	-886	-126	-879	-950
수 출	2,931	6,143	6,585	4,371	6,500
수 입	2,892	5,257	6,711	5,250	7,450
외 환 보 유 액	155	181	78	1,003	1,250
총 외 채 잔 액	11,244	12,359	12,199	13,700	2,900
총 외 채 잔 액 / GDP	128.0	124.0	104.6	117.8	24.2
D . S . R .	8.7	9.4	7.2	..	..

자료: IMF, EIU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이며, 국제상품 가격 상승과 인프라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의 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무려 27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동과 코발트의 국제가격 급락에도 광물 수출량이 증가하여 수출액이 늘어났으나,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인프라 건설 관련 기계류 수입 증가로 수입액 또한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10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외채상환능력]

□ 국제원조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2006년 155백만 달러에서 2008년 78백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거의 고갈상태이었으나, 2009년 이후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원조에 힘입어 크게 늘어나 2010년 말에 1,250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1월 IMF와 World Bank가 19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였고, 동년 11월 파리클럽이 73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채잔액은 2009년 말의 137억 달러에서 2010년 말에는 29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 외채잔액/GDP : 128.0%('06) → 124.0%('07) → 104.6%('08) → 117.8%('09)  
→ 24.2%('10)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정치안정]

□ 카빌라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 지속, 인권상황은 악화

- 2003년에 6년간(1998~2003년)의 내전 및 이웃국가들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실시된 2006년의 국민투표에서 카빌라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정부가 탄생하였음.
- 2007년에 밤바 전 부통령의 지지 세력과 카빌라 대통령 경호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에 밤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체포됨으로써 야당세력이 무력화되어 카빌라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보다 확고해짐.
- 2011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헌법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고 강력한 야당 후보가 없어 카빌라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UN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반대파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에 대한 암살과 고문이 성행하는 등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 [사회 및 소요사태]

### □ 2007년 카빌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밤바 경호사병 간 충돌 발생

- 2007년 3월 수도 킌사사에서 카빌라 대통령의 경호부대와 밤바 전 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2008년에 벨기에에 망명 중이던 밤바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체포되었음.

### □ 동부 지역의 무력 충돌 지속

- 우간다, 르완다 및 부룬디와 접경하고 있는 동부의 키부(Kivu) 지역에서는 콩고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광물자원을 둘러싼 이권을 두고 정부군과 투치계·후투계 반군 세력의 국지적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
  - 동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80%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군의 무장 활동이 성행하여 많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반군의 무장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
- 2010년 7월에 유엔평화유지군 기지의 인접 지역에서 르완다해방민주세력(FDLR)과 마미마이 반군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마을을 습격하여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2. 국제관계

### □ 석유 매장지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 2007년 카빌라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해양석유의 매장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2007년 말부터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Lake Albert 지역에서 우간다와 수 차례의 군사 충돌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해양 경계선과 해양석유 시추권을 둘러싸고 앙골라와 갈등을 빚고 있음.

#### □ 르완다와는 긴장 속 해빙 국면

- 2002년 프리토리아 의정서를 통해 동국에 주둔해 있던 르완다 병력이 철수 하였으나, FDLR 반군이 여전히 콩고의 동부 지역에 주둔해 있어 양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음.
- 콩고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은 2007년까지 FDRL 반군을 몰아내겠다고 르완다에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양국은 2009년 1월에 FDRL 반군에 대항해 공동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동년 8월 6일에는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13년 만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경제,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 국제사회의 지원 지속

- 콩고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내전 및 반군 세력과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유엔, IMF 등의 국제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
- 동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로 인한 민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동국에는 가장 많은 유엔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음.
- 최근 유엔평화유지군의 기지 근처에서 반군 세력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자 콩고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중국은 광물 채굴권을 취득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90억 달러 차관을 공여하는 등 광산 개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 뿐 아니라 군사장비 및 군사훈련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콩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OECD	7등급 (2010.10)	7등급 (2009.10)
S&P	-	-
Moody's	-	-
Fitch	-	-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 경우 인수가능
- 영국 ECGD : 인수불가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부담 감소

- 2008년 11월 동국은 IMF의 PRGF 참여를 승인받은 데 이어, 파리클럽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고 1억 2천만 달러에 대해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음.
- IMF와 파리클럽은 중국수출입은행과의 차관계약 조건이 콩고의 외채상환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보류해 왔으나, 중국과의 계약조건이 재조정되면서 2010년 1월에 IMF와 World Bank는 19억 달러, 동년 11월에 파리클럽은 73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였음.
- 대규모 외채 탕감 조치로 정부의 외채부담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 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 한·콩고민주공화국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2,201	20,024	18,544	15,424	합성수지, 자동차 동제품, 정밀화학원료
수 입	5,942	2,753	22,848	97,879	
합 계	28,143	22,777	21,392	113,303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3년 4월 1일 수교(북한과는 1972년 12월 5일 수교)
- 주요협정 : 해외봉사단 사업협정(2006)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10년 기준 1억 1,330만 달러임.
- 수출액은 2010년에 전년 대비 17%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수입액은 2010년에 동제품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로 2010년 총 수출액의 41%를, 주요 수입품목은 동제품으로 총수입액의 99%를 각각 차지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0년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13건, 7,440천 달러

#### V. 종합의견

- 콩고민주공화국 경제는 내전 종식 후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6%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품인 광물, 농산물 등의 국제가격이 급락하면서 성장률이 2.8%로 다소 둔화되었음.

2010년에는 농업의 호조세와 광업·건설업의 성장세 등의 영향으로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민주선거를 통해 카빌라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정부가 들어섰으나, 동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주변국 반군의 공격, 만연한 부정부패 및 열악한 인권 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09년 IMF로부터 5.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2010년 1월에는 IMF와 World Bank가 19억 달러를, 동년 11월에는 파리클럽이 73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건 사업 등 경제개발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조사역 이현정(☎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mailto:lhj0316@koreaexim.go.kr)